

#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우리의 결심을 새로이 합시다.”

## 대전 스테이크 집회소 헌납식 및 문화 행사 개최



대전 스테이크 집회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대전 스테이크는 지난 1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유성구 노은로 36)의 새 집회소 완공을 기념하는 헌납식 및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완공된 노은동 집회소는 2,688㎡의 대지 면적 위에 주차장을 포함한 3층 규모로 건축되었다. 건물 내부는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실과 활동실, 그리고 여러 교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헌납식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역 칠십인 정동환 장로의 감리하에 진행되었다. 이날 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사회 관계자들은 초대되지 않았으며 대전 스테이크 회장단, 서울 남 선교부 회장, 종교 교육원 지역 대표 등 교회 지역 지도자들과

회원들만이 참석했다.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이기영 형제의 사회로 진행된 헌납식에서 송윤현 축복사와 정양수 스테이크 회장, 그리고 정동환 장로가 말씀했다. 송윤현 축복사는 꿈에 그리던 예배당을 헌납한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며, 50여 년 전 상호 향상 모임에서 배웠던 가르침을 나눴다. “50여 년 전 청소년들이 캠핑을 하며 모닥불 주변에 있었을 때, 지부 회장님이 가장 잘 타는 장작 하나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가장 잘 타던 장작이 꺼져 가는 것을 주시하며, 장작이 잘 타기 위해 함께 모여 있듯이 우리도 서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타는 장작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정양수 스테이크 회장은 3년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스테이크 센터가 생긴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말씀을 전하며, 회원들이 이 아름다운 스테이크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을 당부했다. 회원 모두가 현재적으로 또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함으로써 새로운 스테이크 센터가 예배와 활동 및 선교 사업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마지막 연사로서 정동환 장로는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건물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러셀 엠 넬슨 회장의 신년 메시지를 인용했다. “선지자께서 저희에게 새해에 말씀하신 3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영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셋째, 단호해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이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 장로가 말씀을 끝낸 뒤 새로운 집회소를 헌납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모든 식순은 마무리되었다. 같은 날 오후, 회원들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행사와 건물 투어가 진행되었다. 문화 행사는 대전 스테이크 장동란 자매의 진행하에 음악 발표, 작품 전시회, 포토 존, 대전 스테이크 역사 영상 등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졌다. 특히, 작품 전시회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50여 점의 작품들과 장학진 형제의 서예가 전시되어 회원들과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대전 스테이크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던 김남희 자매는 “처음 선교 사업을 이곳으로 왔을 때 새로운 스테이크 건물이 지어진다고 했었는데 귀환하고 나서 완공된 건물을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회원들이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전 1와드가 더 큰 와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과 간증을 전했다. 노은동 집회소는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을 위한 활동으로 농구, 탁구 등의 스포츠 모임과 무료 영어 회화 프로그램인 ‘잉글리시 커넥트’를 회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 신앙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남 스테이크 독신 그룹 최원철 형제

**취**업을 위해 한창 준비하고 있을 무렵 나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나의 자아 형성이나 삶의 태도를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빼야 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게다가 나는 학기 중에는 재정 서기, 세미나리 교사, 그리고 독신 대표로서 모임 준비 및 참석을 하고 있었고, 방학 기간 동안은 청년 대회 준비와 참석 등을 하며 학교생활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 할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나의 대학 친구들은 방학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인턴으로 있었다거나 다른 기타 경험 등을 이력서에 작성했다고 조언해 주었는데, 나는 교회에서의 경험을 제외하면 크게 내세를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았다. 지금도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내가 구직 활동을 했던 2017년도부터 2018년도의 시기에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편이었기에 교회에서의 삶을 자기소개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결국 교회에서의 삶을 전부 다 자기소개서에 적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이력서를 제출했다. 살면서 해냈던 나만의 큰일에

대해 작성하는 난에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내가 그간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했던 일화를 적었다. 나만의 강점을 쓰는 난에는 청년 대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봉사하고, 체계적인 조직과 시스템을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진행했던 경험을 넣었다. 또한 와드에서 재정 서기로 봉사하면서 학생으로서는 만질 수 없는 현금을 관리했지만 사고 없이 정직하게 일을 수행했던 경험에 관해서도 포함시켰다. 이력서를 쓰면서도 이것은 큰 도박이라 생각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것이라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를 찾아왔고, 나는 내가 원하던 회사에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구직 활동의 경험을 통해 나는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이 잘나서가 아닌 주님의 도움 아래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이었다. 나는 우리의 종교적인 삶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언행이 어떤 가치에 기반한 것인지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최원철 형제와 부모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대하게 표현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혀와 입 그리고 몸과 모범을 통해 그분의 모습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믿는다. 2021년 10월 연차대회 날 엘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 “교회의 이름은 협상하고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 일부를 인용하고 싶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분의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해 주신 주님의 권고를 우리가 진심으로 따르며, 혹 그 권고가 우리가 처음 생각하던 것과 정반대이며 겸손과 희생이 필요한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더 큰 영적인 힘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패밀리 트리

청라 와드 흥현빈 형제의 간증

2년 전쯤 제가 초등학교였던 시절, 와드에서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공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아, 나중에 하면 되겠지, 뭐.'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이제 아론 신권 소유자가 되었고, 최근 와드의 아론 신권 정원회 모임에서 4대까지 가계도를 완성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 역사 사업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이미 패밀리 서치의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두 번이나 잊어버려서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도 기억을 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가 북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저는 아버지 쪽 대부분의 4대 가계도와 13대 이상의 어머니 쪽 조상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13대 이상의 조상 분들과 컴퓨터 화면으로나마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대단한 무언가를 해낸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는 가족 역사 사업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작성된 패밀리 트리에서 필요한 대리 침례 의식을 받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64편 33절에는, "그런 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일이 생겨나느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이를 통해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지치지 않고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려 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위대한 반석을 위한 기초가 잘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청소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연결된 조상들을 확인하면서 저의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조상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저의 조상들이 언젠가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가족 역사 사업

청라 와드 김다비 자매의 간증



저희 엄마께서는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드리려는

목적으로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내용을 읽어 주시면 받아 적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기록하는 일이 익숙해지면서 가족 역사를 혼자서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한자를 분석하고 찾는 법과 태어난 날을 확인하는 방법, 족보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엄마의 도움을 통해 이제는 혼자서도 족보를 읽으며 가계도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업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늘 생각해 왔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제가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경전에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록하면 하늘에서도 기록될 것이요' (교리와 성약 128편 8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가족 역사 사업은 복음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 더 큰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가족 경전을 읽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월에 성전에 갈 때 제 이름으로 출력한 자료를 가지고 직접 대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족 역사 사업을 꾸준히 습관처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저는 가족 역사 사업이 저와 제 조상들에게 중요함을 알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의 이 작은 행동이 제 조상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 봉사 선교사 이준영 장로입니다.

수지 와드 이준영 장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영 장로입니다.” 작년 9월 이준영 장로는 새로운 청년 봉사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가족이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시작되는 이준영 장로의 하루는 한국 서비스 센터에서의 봉사 업무로 채워진다. 준비 날인 월요일을 시작으로 이 장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신촌의 배부 센터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초구에 있는 한국 서비스 센터로 향한다. 이준영 장로는 “서초동 사무실에서는 교회 홈페이지나 후기 성도 광장의 기사를 읽고 댓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김선영 자매님과 함께 선교사들의 비자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출장을 가기도 하는데, 이제는 매주 가는 저를 기억해 주시는 사무소 직원들도 계세요.”라고 자신의 봉사에 대해 소개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배부 센터에서는 회원들이 요청한

주문 수량에 맞게 가먼트나 다른 물품을 포장하는 등의 봉사도 하고 있다. 봉사 선교사는 청년 전임 선교사들과 같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며, 합당성 면에서도 동등한 표준을 지닌다. 다만 전임 선교사처럼 선교 임지에서 선교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복음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자택에 거주하며 스테이크 회장, 봉사 선교사의 부모, 그리고 봉사하는 곳의 담당자와 함께 협력하여 거주하는 현지의 상황과 본인의 능력에 맞게 봉사한다.(일반 지침서 24.2.2) 현재 한국 서비스 센터에는 이 장로를 돕는 봉사 선교사 지도자는 없지만, 이 장로는 매주 금요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선교사로 부름받은 닐슨 장로 부부와 함께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 배우며 봉사를 이어 가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및 정서적인 이유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는 젊은 청년들이나 이와 유사한

어려움으로 일찍 귀환해야 했던 젊은 청년들은 봉사 선교사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를 위해 의미 있는 봉사를 이어 가고, 개인적인 간증을 강화하며 신앙을 쌓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리셀 벨라드 장로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중 어떤 사람에게는 고되고 힘든 전임 선교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그 사람은 성전의 구원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다른 봉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봉사하는 방법의 차이를 넘어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사업을 위해 그들의 젊은 시절의 시간을 할애하여 시간의 십일조를 바치는 모습은 참으로 위대하고 값있다. ■



##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흥덕와드 감독: 조일진 형제(전임: 남상덕 형제)  
통영지부 지부 회장: 서동수 형제(전임: 이호중 형제)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